

##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7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0,46-52)

###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0,46-52

어릴 때는 자주 쓰는 물건도 쉽게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뒤통했다. 급하기만 한 내 눈에는 뜨지 않았지만 어른들은 잠시 살핀 후에 찾아 주셨다. 그 때 부모님께 들었던 “눈 뜨고 무얼 보니?”하신 말씀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집중하지 않거나 마음을 딛 데 두면 찾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없음이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볼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이기심과 나 중심의 생각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쉽게 판단한다. 사랑과 관심이 고갈되어 다 보는 것 같으나 실상 제대로 보는 것이 없다. 이웃의 마음과 필요에 자신의 소중함과 내적 상태에 삶의 영원성과 하느님의 은총에 눈이 먼 채로 사는 게 아닌가 싶다.

예리고의 소경 바르티매오가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본다. 지금에야 눈병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눈병에 대해서 완전한 치유를 기대할 수 없었다. 질환을 방치하여 결국 실명에 이른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 생계를 위한 일을 의당 할 수도 없거나 구걸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평생 겪어야 하는 어두움과 절망에 대한 정신적 비탄과 고통으로 팽배한 자의식은 가혹하기 그지없다. 사회에서는 인간이하의 홀대를 받고 종교적으로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취급당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뿐이다. 실로 눈먼 사람들은 인간의 비탄과 무력함의 대명사인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처지의 사람에게 희망은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은 또 무엇인가. 눈만 성하게 된다면야 모든 것이 달라 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바르티매오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한줄기 빛을 느낀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내면 깊은 곳의 일렁임이 가슴을 달구고 마음을 관통하여 입으로 솟아난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억누름 속에서도 몸부림치듯 절규한 영혼의 소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만난다. 예수님께서 그의 단순하고도 전적인 신뢰에 대하여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며 바라보신다. 바르티매오는 치유받고 나서 떠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많은 군중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참된 믿음이 없었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르티매오는 눈먼 사람이라 따돌림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의탁한 그의 믿음은 율법학자의 지식과 군중들의 호기심보다 높다. 자신의 고통과 눈물을 예수님께 모두 열어 드림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제자요. 참된 자녀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여기며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함도 보려 하지 않는 우리들이다. 오늘 복음의 바르티매오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야 할 것이다. 눈은 뜨고 살지만 헛된 자존심과 욕심에 가려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변화무쌍한 나의 믿음을 성찰하고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느님은 늘 당신께 청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는 분임을 굳게 믿자.

(수원교구 10월소공동체지에서 발췌)

## “마카베오기 상권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마카베오기 상권

저자  
미상.

집필 연대  
기원전 100년경.

집필 동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즉위 때부터 40여 년간(기원전 175-134) 유다 마카베오 가문의 유다 민족을 위한 항전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알렉산드로스에게서 비롯된 셀레우코스 왕조의 시작과 유다인들에 대한 박해(1마카 1장), 마타티아스와 그의 세 아들, 유다 마카베오(1마카 3,1-9,22), 요나탄(1마카 9,23-12,53), 시몬(1마카 13-16장)등의 활약상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유다 가문의 잠정적인 승리와 함께 성전 재봉헌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지사항

- \*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 성모님과 함께 목주기도의 신비를 날마다 묵상합니다.
- 매일의 삶 안에서 작은 일에 충실하여 우리 모두가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 합니다.\*

### 다음 달 성경말씀

요한 18,33-37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권세를 앞세우는 왕은 세상에 있지만,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신앙인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참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와 사랑과 평화가 되신 주님처럼 나도 이웃안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침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정수원 작곡

D A Bm G Em A7

하느님 백성 자녀들이! 모두 모여라

G D Em D7 A7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D A Bm G Em A7

종교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G D Em A7 D D7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G D Em D7 A7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G D Em A7 D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